

소규모교회의 결혼예비교육 적용방안 연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모 상 근

< 요약 >

본 연구는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소규모교회¹⁾의 결혼예비교육 적용방안을 다루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결혼예비교육은 과거에 비해서 내용도 알차고, 강의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하고, 전문적인 스텝들이 모든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강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도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상당한 재정을 들여 결혼예비교육에 참여한다. 그래서 기독교청년들이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예비학교가 대형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소규모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소규모교회는 결혼예비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며, 심지어 결혼예비교육 대상자도 부족한 현실에 놓여있다.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예비교육과 관련된 문헌과 소규모교회의 상황들을 파악했고, 기독교기관과 대형교회들의 결혼예비교육 실태를 인터넷과 전화문의를 통해 수집 및 정리하여 소규모교회가 원활한 결혼예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참고해야할 주안점과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교회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소규모교회들이 여러 방법과 대안으로 지혜를 모으고 새롭게 눈을 뜬다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예비교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소규모교회가 결혼예비교육을 통해 더욱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제어 : 가정, 결혼, 결혼예비교육, 결혼예비학교, 소규모교회

I. 서론

결혼예비학교는 결혼(Marriage)을 준비하는 기독교청년들에게 구름판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예비학교는 일부 대형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소규모교회에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고, 가정은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결혼예비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야 하고,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결혼예비교육은 결혼식을 준

1) 소규모교회: 본 논문에서는 100명 이하의 교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

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결혼예비교육은 단순한 행사(Wedding)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정제도를 통해 기독교청년들이 어떤 결혼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가정의 설계도를 그려보는 축복의 기회이다.

러시아 속담에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서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현대인들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혼은 곧 행복’이라는 공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도가 저하되면 가정의 해체를 생각하게 된다(김규식, 2013: 369).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은 결혼을 미루며 독립하여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노인들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2010년 1인 가구 비율은 23.9%로 30년 전인 1980년에는 4.8%였던 것이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를 보면 결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2012년에는 ‘결혼은 해야 한다’ 63%, ‘하지 않아도 된다.’ 34% 중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20%였는데, 2014년에는 ‘결혼은 해야 한다’ 56.8%, ‘하지 않아도 된다.’ 40.5% 중에 ‘반드시 해야 한다’ 14.9%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2012년에는 38%, 2014년에는 40%로 약간 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3세 이상 남녀에게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질문에서 전적으로 동의 8.3%, 약간동의 38.3%, 약간반대 29.5%, 전적으로 반대 24%로 나타나 동거에 대한 찬성이 46.6%, 반대가 53.5%라는 응답이 나왔다(통계청, 2015).

결혼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구성요소인 가정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일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정은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기초요소이며 심장과 같다(잭스칼, 1997: 38). 그래서 작아 보이는 가정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교회와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첫 단추와 같은 결혼은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기회중의 기회이다(이영호 외, 2004: 27-28).

이에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고, 소규모교회가 결혼예비교육을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대형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결혼예비교육을 조사하여 주안점과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소규모교회의 기독교청년을 대상으로 성경적인 결혼예비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표 1>의 통계와 같이 전국 교회의 35-49%에 해당하는 소규모교회도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도록 지원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문헌연구와 전화통화로 추가정보를 얻었다는 것과 의외로 결혼예비교육 분야의 선행연구가 턱턱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들이 결혼예비교육의 현황, 내용분석, 효과성 검증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본 논문은 전국적인 수치로 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에도 등한시 되어 왔던 소규모교회에 관심을 두었고, 대형교회나 전문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결혼예비교육을 소규모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주안점과 적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II. 소규모교회의 결혼예비교육

1. 소규모교회의 정의와 현황

한국교회의 상당부분이 소규모교회로 분류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단 지도자들의 관심은 ‘큰 교회’에 있다. 왜냐하면 교단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큰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이후천, 2011: 235). 소규모교회는 하나의 개체로 보면 작지만 전체 교회 중 대다수를 차지하며 한국교회의 건강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교회는 ‘개척교회’, ‘미 자립 교회’, ‘작은 교회’ 등의 이름으로 혼용되고 있다. ‘개척교회’는 설립된 지 오래지 않아 인원수나 재정적인 운용이 넉넉지 않은 교회를 말하고, ‘미 자립 교회’는 교역자 사례 혹은 교회를 유지·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태의 교회를 의미하며, ‘작은 교회’는 설립으로부터의 기간이나 재정적인 운영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유재덕, 2012: 53-54). 또한 교회구성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는 보통 100명 이하의 교회를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는 가정교회나 소그룹교회를 설명할 때도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정충길, 2012: 28-31).

그런데 소규모교회는 ‘힘이 없다’거나 ‘연약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기독교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의 실천을 이룰 때, 소규모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기독신문, 2004. 2. 26.).

<표 1> 소규모(미자립)교회 현황(2012년 기준) (단위: 개, %, 만원)

교단명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교	기독교대한성결교	비고
소속 교회 수	11,352	8,305	5,719	2,700	
미 자립 교회 수	4,112	2,919	2,825	1,240	
백분율(%)	36	35	49	46	
판정기준	농촌/도시 2000/3000	농촌/도시 2000/3000	3,500	농촌/도시 2000/3000	1년 예산

* CBS 노컷뉴스(2012. 11. 14.) 참고 작성.

교단별 소규모교회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 1>을 보면 국내 최대 교세를 가진 예장합동은 11,352개 교회 가운데 36%(4,112개), 예장통합은 8,305개 교회 중 35%(2,919개)의 교회, 감리교는 국내 5,719개 교회 가운데 49%(2,825개)가 미 자립 교회이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700여 교회의 절반에 가까운 1,240여 교회가 미 자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 교단의 미 자립 교회 판단기준이 각각 다르고, 감리교의 경우 1년 예산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전체 교단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미 자립 교회에 편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에 의하면 ‘소규모(미 자립)교회’가 각 교단 전국 교회의 80%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CBS 노컷뉴스, 2012. 11. 14.).

2.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교회 안에 있는 미혼 청년들의 고민은 성경적인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통해 ‘똥는 배필’을 만나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다. 교회 안의 현실은 기독교청년을 위한 결혼관이나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학교나 기관을 통해서 성교육을 받지만 일반적인 청년들의 이성교제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김영근, 2008: 117-118). 더구나 신앙인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제한된 사قم’은 성경적인 결혼관이 확고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매우 어려운 고민을 안겨준다(한내창, 2012: 148-151).

(1) 결혼예비교육의 시작

결혼예비교육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4년 보스턴대학에서 어니스트 그로브(Ernest Groves)가 정규강좌를 시작했고, 1929년에 콜롬비아대학에서는 "Prepar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Living"이라는 정규과목이 개설되었다(이영호, 2004: 29)

우리나라의 결혼예비교육은 1970년대부터 문제 예방적 접근으로 필요성이 인식되어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과 포항여성회관 등에서 미혼여성이나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박주희·임신영, 2009: 31-32).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단체(두란노서원)와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등에서 ‘혼인준비교실’을 개설하여 혼전교제 및 배우자 선택, 가족관계, 혼인생활에 필요한 법률, 부부 성생활, 혼인준비 및 결혼예절, 부부의 대화기법, 임신과 출산, 부부심리, 결혼과 직업, 행복한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단체와 개 교회에서 결혼예비교육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러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오윤선, 2008: 202-203).

(2)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되고, 가족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김혜선, 2012: 152-153). 따라서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한국교회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가정의 이혼율이 낮다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셉티 펠드한(Shaunti Feldhahn)의 조사결과가 있다. 미국인들의 평균 이혼율은 31%에 달하지만, 목회자로서 자신이 집례해 준 부부들을 27년 뒤 일일이 점검해본 결과, 143쌍 중 이혼자는 25쌍으로 기독교 가정의 이혼율은 10%로 나타났다(김혜선, 2012: 152-153).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의 교회 정기출석자들의 이혼율은 15-20%대에 머물렀고, 2008년 당시 기독교 리서치 기관 바나그룹(Barna Group)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체의 이혼율은 33%, 복음주의자들은 26%였다고 한다(LA 크리스찬 투데이U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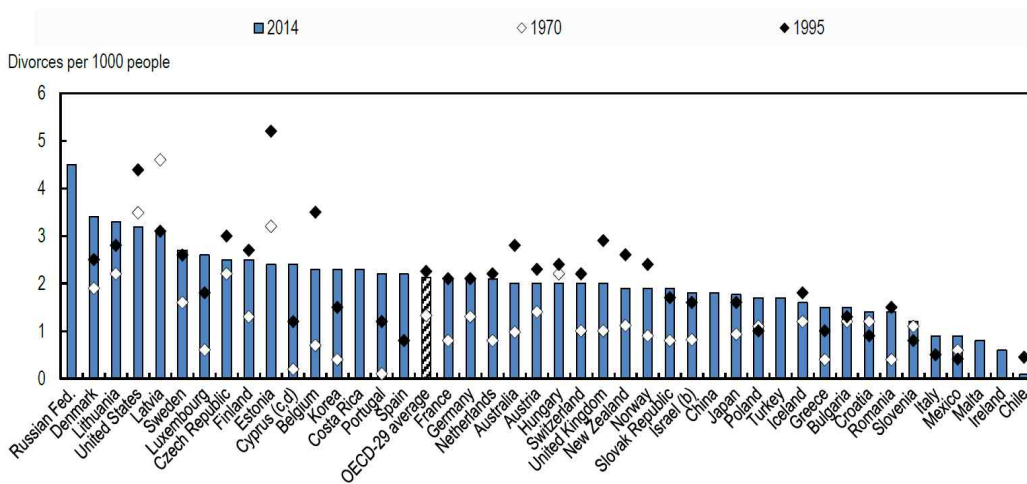
국내에서 아직까지 결혼예비교육이 갖는 효과성에 대해 방대하고 적극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조사대상(15쌍)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결혼예비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국내 보고가 있다(이정숙, 2008: 74-76). 또한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정현숙, 2005: 156-157; 박경옥·한숙자, 2012: 155-156; 경동진·조운옥, 2014: 379-382).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건강한 기독교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소규모교회의 결혼예비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결혼예비교육은 높은 이혼율, 가족갈등의 심화로 인한 가족해체,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으로부터 개인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혜선, 2012: 152-153). 또한 교회에서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은 대상자인 청년들 스스로가 직면한 중요한 선택들 중에 중심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교육적 기능, 공동체로서의 특성유지,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 가정의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도 결혼예비교육의 실행은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일에 우선한다고 하겠다(변영인, 2008: 170-171).

(3) 결혼예비교육의 목적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 결혼예비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혼예비교육의 목적은 첫째, 결혼을 앞둔 당사자들에게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다. 둘째, 결혼 전에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사전지식과 현실적인 정보를 갖게 한다. 셋째, 의사소통 방법과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갈등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측, 대비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김광률, 1998: 38-41).

<표 2> 2014년 조이혼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별 현황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자료

가정생활은 결혼 후에 시작되지만, 가정생활이 결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잭 볼스윅·주디 볼스윅, 1995). 당연히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과거에 비해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별 통계에서 조이혼율²⁾순위가 2008년 9위에서 2014년 13위로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보다는 높게

2) 조이혼율(粗離婚率): OECD 등 국제 통계와도 비교 가능하도록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이혼율 통계이다. 해당 연도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총 이혼 건수를 그해 7월 1일 인구인 연앙인구(年央人口)로 나눈 후 1,000을 곱한 수치이다(인적자원관리 용어사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대별 추이를 보여주는 이혼관련 통계 <표 3>을 참고해보면 이혼/별거 여성(20~44세) 중 결혼 연도별 평균 혼인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드러나 있는데, 전체평균 9.4년, 1980~1990년 15.8년, 1990~1999년 10.0년, 2000~2012년 5.7년으로 점차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혼/별거 여성(20~44세) 중 평균 혼인지속기간 (단위: 년)

전체 평균	1980~1990년	1990~1999년	2000~2012년	비 고
9.4	15.8	10.0	5.7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시작은 모두가 행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모든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을 미리 발견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이자 목표이다(김광률, 1998: 40).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 결혼예비교육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당사자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돕는 배필’로 만나는 결혼을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대등적 위치에서 상호적으로 돕는 인격적인 관계를 ‘돕는 배필’로 정하셨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보호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신약성경 엡5:28-30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것을 권면한다(이재서, 2013: 76-78, 85). 이와 같이 기독교 결혼예비교육은 성경적 결혼관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박경옥·한숙자, 2012: 135-136).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의도하시고 만드셨던 대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결혼에 대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는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도를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제정하셨을 때, 사람이 이혼할 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첫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었다(잭 스킵/지선희 역, 1997: 21, 29-30). 결국 결혼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 속에서 알아가는 체험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에덴동산을 이루어가는 것은 더 나은 장소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유재명, 2011). 이러한 가정의 형태는 무죄시대에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의 본래 모습으로서 후대의 모든 가정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이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인간의 행복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였고, 그런 완벽한 복지제도 하에서 100퍼센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완전한 결혼과 가정을 예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지기다(이재서, 2013: 86-87).

교회는 결혼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행복감이나 만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명과 섬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는 부산물로 행복감이나 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김규식, 2013: 383-385).

3. 소규모교회 결혼예비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교회 내에서의 결혼예비와 관련된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최근 운영되고 있는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에서 수십 명에서 많게는 백여 명까지 신청을 받아 단체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규모가 작은 소규모교회의 경우에는 재정, 장소, 인력 등의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을 뿐더러 어렵게 결혼예비교육을 실행한다고 해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결혼을 앞두고 상대 배우자와 함께 성경적인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형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참여하는 것이 일정과 재정을 비롯한 여러 여건상 그리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소규모 교회에 출석하는 결혼대상자들은 결혼예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결혼예비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결혼 이후에도 신앙생활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교회가 현실적으로 결혼예비교육 운영이 힘든 상황이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예비교육의 대상자들이 결혼에 대한 아무런 성경적인 준비 없이 결혼을 맞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대형교회나 기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결혼예비교육을 찾아가는 현실이다.

III.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 실제

1990년대 이후 결혼예비교육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연구들도 진행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결혼예비교육의 현황을 전수조사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4곳, 교회에서 운영하는 5곳을 살펴보았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로 담당자와 통화해서 부족한 정보를 추가로 얻었다.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결혼예비교육은 갓피플 명품결혼예비학교,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결혼예비학교, 한국선교사목회자 상담센터 나이스 결혼예비학교 등 4곳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분당우리교회, 사랑의 교회, 신촌성결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등 5곳 등이다. 이상의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들은 ‘결혼예비’, ‘결혼준비’등의 검색어만 입력해도 찾을 수 있을 만큼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수개월 전부터 대기상태에 있는 커플들이 있었고, 미리 준비하고 교육신청을 해야 등록할 수 있다.

1. 결혼예비교육의 운영현황

결혼예비교육의 운영횟수는 2회기 또는 3회기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회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홈페이지 상에 7회기를 운영하는 곳(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이 있었는데, 전화로 문의했더니 원래 5회기를 운영하다가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해서 7회기로 늘려서 운영하자, 오히려 모집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다시 5회기로 진행한다는 답

변을 들었다. 사랑의 교회의 경우는 5회기를 운영하며, 등록교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평신도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한국선교사목회자상담센터에서 운영되는 ‘나이스 결혼예비학교’는 사랑의 교회와 지구촌교회에서 오랜 기간 상담목사로 일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5회기(사랑의 교회), 3회기(지구촌교회)였던 회기를 2회기로 줄이는 대신 회기 당 시간을 늘려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짧게는 전체 회기합산 15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3회기의 경우 5-8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참여가 쉽지 않은 일정이다.

조사대상의 기관과 교회의 결혼예비교육의 홈페이지 모집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마감되고, 대기 순번을 받아 기다리기도 한다. 1년에 두 번 있는 공휴일의 1회기로 진행되는 단기교육의 경우 사전예약을 해도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사대상의 기관이나 교회는 결혼예비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찾는 일에 노력하기보다 순서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참여대상을 기독교인으로 국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대략 25쌍-50쌍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는데, 인원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려 교육효과가 낮게 나타나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운영자의 답변을 들었다. ‘주안장로교회 결혼예비학교’의 경우 3-4커플씩 조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영 팀에서 조장을 따로 세워서 매니저 역할을 하게 하여 조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30-40명의 스텝이 진행을 원활하게 돕는 등 교회가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는 결혼날짜가 확정(등록교인)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구체화했고, 분당우리교회와 지구촌교회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커플이라고 적시했으며, 지구촌교회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출석에 문제가 없으면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결혼예비교육의 교육내용

한국교회의 결혼예비교육의 내용은 기독교 결혼예비교육의 목적에 맞게 성경적 결혼관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근간을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에서도 신앙과 신앙적 활동의 조화여부에 대한 요구도가 아주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난희, 1999: 46).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을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한 결과 결혼관, 성, 의사소통, 자녀교육, 자아상, 재정, 애정, 부부역할의 순으로 구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숙미, 2011: 88-89).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는 의사소통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었으며, 갈등해결, 성생활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오윤선, 2008: 202-203).

조사대상의 결혼예비교육 내용부분을 살펴보면, <표 4>과 같이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

<표 4> 기독교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 구성내용

구 분	운영횟수 /시간	대상인원	내 용	비 고
갯피플 '명품결혼 예비학교'	3회기 / 7시간	결혼예비 50쌍	성경적 결혼관, 남녀차이, 애니어그램, 성, 성품대화법, 내면상처와 썬뿌리 보기	1인 / 15만원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소	7주 과정 (5주 과정)	결혼예비, 신혼부부 25쌍	가정설계 이렇게 하라, 서로에 대한 차이와 이해,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 남편과 아내의 역할, 이렇게 대화하면 행복하다, 부부의 행복한 성 생활을 위해, 당신의 사랑의 언어	12만원 /커플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결혼예비학교	3회기 / 8시간 1회기 / 년 2회 (공휴일)	결혼예정 50커플	결혼의 성경적 원리, 결혼준비와 재정, 남녀차이, 부부의 성, 성결서약식, 건강한 대화법,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부부계명 완성, 청혼식&수료식 결혼의 성경적 원리&남녀차이, 부부의 성(성결서약식),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건강한 대화법, 청혼식&수료식	1인 / 10만원
한국선교사 목회자 상담센터 '나이스결혼 예비학교'	토요일 2회기 / 8시간30분		기본적인 준비, 결혼예식에 담긴 의미, 재정관리, 시간관리 및 신앙생활, 자녀계획 및 첫날밤 준비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 갈등해결, 검사결과나눔(PREPARE 관계분석, T-JTA 성격분석)	24만원 /커플
분당우리교회 결혼예비학교	3회기 / 5시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40커플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풍요로운 우리집 가정경제, 흠으로 만든 남자, 뼈로 만든 여자, 부부대화과 사랑의 연합, 성경이 말하는 결혼, 행복비결 소통의 축복	19만원 /커플
사랑의 교회 결혼예비학교	5회기 / 4시간30분	결혼날짜 확정(등록교인)	데이트에서 결혼에 이르는 제반 문제와 법적 정보, 신혼여행, 자녀계획, 가정경제생활 등 구체적 지침	
신촌성결교회 결혼예비자를 위한 코칭스쿨-이삭 리브가를 만나다	3회기 / 6~7시간	결혼예비커플, 신혼부부	1. 이삭, 리브가를 만나다(DISC, 부부의 성과 출산) 2. 이삭과 리브가 고향을 떠나다 (떠나야할 과거, 부모, 상처, 새로운 가정관) 3.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세우기 (결혼의 이해와 믿음의 가정, 성경적 물질관, 가정경제)	20만원 /커플
주안장로교회 결혼예비학교	3회기 / 7시간	선착순 24커플 (3~4커플씩 조별운영)	남녀의 차이, 신혼부부대화, MBTI, 첫날밤과 성, 재정관리, 커플기도회 * 부부십계명(액자), 공개프로포즈	15만원 /커플
지구촌 가정훈련원 '결혼면허교실'	토요- 3회기 / 5시간 주일- 3회기 / 5시간	최대 40쌍 약혼커플, 결혼전제로 교제중, 둘이 함께 수강가능 커플, 지방 거주자도 매주 출석할 수 있는 커플	결혼과 가정, 자아상과 치유, 신혼부부의 재정관리, 부부의 성과 임신, 관계분석과 갈등해결, 신앙과 성숙한 가정생활	16만5천원 / 커플

* 김혜선(2012)의 표 참조수정.

로 나타났으며, 전체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이 성경적인 결혼관과 의사소통, 재정 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선교사목회자 상담센터 ‘나이스결혼예비학교’, 신촌성결교회 ‘결혼예비자를 위한 코칭스쿨-이삭 리브가를 만나다’, 주안장로교회 ‘결혼예비학교’, 지구촌가정훈련원 ‘결혼면허교실’은 PREPARE 관계분석/T-JTA, DISC, MBTI, 관계분석 등을 활용해 배우자의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차별화가 되었고,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결혼예비학교’, 주안장로교회 ‘결혼예비학교’ 등은 부부십계명과 청혼(공개프로포즈)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서로에게 신뢰감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갯피플 ‘명품결혼예비학교’의 ‘내면상처와 쓴 뿌리 보기’,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의 ‘이렇게 대화하라’, 한국선교사목회자상담센터의 ‘갈등해결’, 지구촌가정훈련원의 ‘관계분석과 갈등해결’ 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높아져가는 이혼율이나 가정의 갈등상황들을 염두 해 둔 것으로 보이는 예방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나 행복의 조건은 이해하고, 참고, 기도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해왔던 후속처리가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예측하고 방지하는 결혼예비교육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강사진의 인력수급이다. 결혼예비교육을 진행하는 각 기관과 교회는 상담, 내적치유, 산부인과 등과 같은 전문분야의 강의를 외부강사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대형교회의 경우 교회 내에 대학교수, 상담전문가, 가정사역전문가 등이 출석하고 있는 경우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전문가들의 교회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기관의 결혼예비학교 강사를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에 초빙해서 진행하는 교회도 있다.

3. 교회 밖의 결혼예비교육

교회 밖의 결혼예비교육은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회기와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기독교 관련기관이나 교회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종교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준비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필수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예비 프로그램은 ‘양성평등’, 정부의 출산·양육정책’ 등이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준비교육’은 결혼을 앞두고거나 교제중인 미혼남녀/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초기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교육은 무료이고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커플도 참여가 가능한 센터도 있다. 기본 매뉴얼에서는 6회기 운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운영회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12년부터는 1회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김혜선, 2012: 156-157).

(2) 타종교 결혼예비교육

천주교에서는 신자의 경우 결혼 전 반드시 교리교육의 일환으로 ‘혼인강좌’를 수강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1회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함께 수강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 자체에 초점을 둔 일반적 내용의 교육이나 정보전달 못지않게 천주교의 교회법상 성사혼율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단위 강의중심으로 운영되고 참가비는 1인 2만원이다. 천주교의 ‘약혼자 주말’은 선택적으로 종교와 무관하게 참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996년에 처음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예비부부가 2박3일간 숙박을 함께 하며 밀도 있게 서로를 탐색해가는 프로그램이다. 예비부부의 대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신부와 함께 토의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고 커플참가비는 24만원이다(김혜선, 2012: 158, 163-164).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결혼준비학교 ‘천년지애’는 종교와 상관없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예비부부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무료이다. 종교적인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불교닷컴, 2012. 8. 20.).

IV. 결론 및 제언

먼저 본 논문은 기독교 기관과 대표적인 교회들의 결혼예비학교 운영현황과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소규모교회가 연합의 형태로 적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과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자료를 수집했기에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 향후 소규모교회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성공적인 결혼예비교육 진행사례를 발굴하여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또는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실시한다면 좀 더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전 예비부부들의 한 시간 토의는 결혼한 이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몇 주간의 상담보다 그 가치가 높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그만큼 결혼예비교육이 갖는 예방효과를 강조한 말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정현숙, 2005). 또한 일반인의 80%, 전문가의 97.8%가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김광률, 1997: 25-26). 이는 소규모교회가 결혼예비교육에 대해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결혼예비교육의 형태나 운영방식이 반드시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모교회에서 좀 더 효과적인 결혼예비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주안점과 적용방안 그리고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교회의 결혼예비교육을 준비할 때 주안점

첫째, 결혼예비학교의 핵심내용을 간파해야 한다. 먼저 대형교회들과 기독교 기관들에서 운영되는 결혼예비학교의 프로그램 내용에서 드러나듯 성경적인 결혼관, 남녀의 차이, 의사소통(갈등해결 방식), 경제생활, 육아/가사분담 등 필수교육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한국선교사목회자상담센터, 신촌성결교회, 주안장로교회의 경우와 같이 성격유형검사(T-JTA, DISC, MBTI 등)를 활용한 배우자의 성격

을 파악하는 방법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만 갈등해결문제를 직접 과목에 언급하고 있는 나이스 결혼예비학교, 지구촌 가정훈련원의 경우처럼 가정 내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정 내 갈등 상황에 익숙지 않은 대상자들이 올바른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소규모교회 내 교육대상자들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기관이나 대형교회의 결혼예비교육은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7회기), 사랑의 교회(5회기/4시간 30분), 갓피플·두란노바이블칼리지·분당우리교회·신촌성결교회·주안장로교회·지구촌가정훈련원(3회기/7~8시간) 등으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대상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상자들이 교육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더구나 몇 달 전부터 등록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혼예비교육을 실시하는 교회와 기관들은 교육회기를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년에 한두 번은 공휴일을 이용하여 1회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휴일의 1회기 프로그램은 오히려 평상시의 교육보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바쁜 직장생활의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결혼대상자들에게 1회기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 밖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타종교의 결혼예비교육도 마찬가지로 회기가 줄어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교회의 약점은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데 있으나 이런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교육대상자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결혼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내용에 의하면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예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요구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1회기 기준으로 2회기 또는 4회기 단기특강, 평일 저녁시간 대면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옥·박선민·구향숙, 2006:218-220).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시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교육대상자의 여건과 필요에 맞추어 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셈이다.

셋째, 결혼예비교육 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 시행중인 대부분의 결혼예비교육은 두 사람이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세례 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사랑의 교회의 경우는 등록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만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더욱 결혼예비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혼예비교육의 목적은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실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사전지식과 현실적인 정보를 갖게 하며,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종교의 경우 종교와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넷째, 결혼예비교육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 소규모교회의 결혼예비프로그램의 경우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타종교의 경우와 같이 저렴한 교육비를 표방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경우 1-2만원대의 저렴한 1회기 교육도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이나 대형교회의 결혼예비교육의 경우 수 십 만원씩 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교회의 예산투자는 그만큼 결혼예비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소규모교회일

수족 사람을 키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규모교회의 목회자가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결혼예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교회의 결혼예비교육은 구색 맞추기가 아니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되기에 많은 기독교청년들이 결혼예비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교회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결혼예비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소규모교회의 결혼예비교육 적용방안

소규모교회에서 결혼예비교육을 시행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교육준비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교육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결혼예비학교를 준비하고 주보에 광고를 하면 교회 내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 결혼예비교육은 형식적인 청년부 전체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기 쉽고, 결혼을 언제할지도 모르는 나이 어린 청년들이 결혼예비교육을 받게 되면 피상적인 교육에서 멈추고 만다. 그렇다면 결혼예비교육 대상자가 많지 않은 소규모교회가 결혼예비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적용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결혼예비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소규모교회의 연합(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

소규모교회들의 대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작은 교회들의 연합이다. 그러나 막상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소규모교회들의 연합은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국내전도국에는 건강한 교회세우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2013년 가을에 “가치 있는 작은 교회들의 모임, SWC(Small Worthy Church)”를 조직했다. 최근에는 서울지역모임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목동, 관악, 도봉지역으로 세분화해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적인 접근성과 모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SWC 회원교회들은 품앗이 전도, 붕어빵 전도, 무료이동식 카페전도 등의 방법들을 공유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예비학교를 연합형태로 운영해갈 수 있다.

최근 SWC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교회들이 생겼다. SWC에서는 ‘형제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척을 통해서 부흥한 중견교회들이 소규모교회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형태이다. 소규모교회가 연합해서 결혼예비교육을 진행하는 일은 장소와 찬양팀 구성, 강사섭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연합 지역 내의 교회 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찬양팀 등 진행을 담당하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둘째, 지역노회 또는 시찰회의 연합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아직 연합전선이 구축되어있지 않거나 낯선 교회와 연합을 시작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경우, 평소 1년에 두 번 이상 얼굴을 마주대하는 시찰회에서 유력한 교회를 중심으로 결혼예비학교를 진행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결혼예비교육이 가능하다. 노회에서 실시하는 연간 프로그램들을 생각해보면 노회 연합 체육대회, 노회(시찰회)교역자 수련회, 노회 목사·장로 기도회, 노회주일학교연합회의 여러 행사(성경고사대회·그림글짓기대회·찬양울동대회) 등 소규모교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사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합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결혼예비교육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노회와 시찰회를 중심으로 서로 친분이 있는 목사·장로가 연합체를 구성하는 일은 지역을 무시하고 모이는 결혼예비학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결혼예비학교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순차적으로 맡아가며 운영할 수도 있다. 강의로 소규모교회 목회자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에 따라 과목을 맡거나 평신도 전문가가 있다면 강의를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노회나 시찰회의 연합형태로 결혼예비교육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교회가 재정을 협력하여 운영하거나 교회차원에서 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소규모교회의 결혼예비교육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독교 기관이나 대형교회의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많은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경우 전체적인 관리와 세심한 관리가 어렵고, 출석교회에서 교육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소규모교회 목회 현장의 경우, 결혼예비교육 대상자들이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심방과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먼저 결혼한 가정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소그룹을 묶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3. 결혼예비교육을 위한 제언

첫째, 신학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커리큘럼에 결혼예비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일반대학교의 교양과목에서도 '가정'과 관련된 과목이나 '결혼준비교육'등의 과목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는 오히려 '결혼예비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신학교육의 커리큘럼에서 결혼예비학교와 같은 소그룹 관련 수업들이 선행된다면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결혼예비학교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결혼예비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일반 사회나 목회현장에서도 안정된 가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러나 결혼생활과 결혼예비학교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낸 연구는 아직 없다. 미국의 셉티 펠드한(Shaunti Feldhahn)과 같이 앞으로 결혼예비학교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종적연구를 하는 등의 후속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앞서 '교회 밖의 결혼예비교육'내용 중 '타종교 결혼예비교육'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회주변의 지역사회에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1회기 프로그램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결혼예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결혼대상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신앙인일 때, 어떤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김영근, 2008: 142)

이상과 같이 기독교기관과 대표적인 교회의 결혼예비학교 내용 조사를 통해 소규모교회의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의 주안점과 적용방안 그리고 몇 가지 제언을 살펴보았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결혼예비교육은 과거에 비해서 내용도 알차고, 강의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하고,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모든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강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

에 교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도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상당한 재정을 들여 결혼예비교육에 참여한다. 그러나 결혼예비학교는 더 이상 대형교회나 기독교 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소규모교회들이 여러 방법과 대안으로 지혜를 모으고 새롭게 눈을 뜨다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예비교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소규모교회가 결혼예비교육을 통해 더욱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유재명(2011). 『그 처음의 땅 에덴에서 찾은 나』, 넥서스CROSS.
- 이재서(2013). 『기독교 사회복지의 근원: 복지신학으로 가는 길』, 도서출판 세계밀알.
- Jack O. Balswick and Judith K. Balswick (1995).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Baker Book House Company, Grand Rapids, MI.
- 황성철 율김(1995), 『크리스천 가정』, 도서출판 두란노.
- Jack Schaap (1995). *Marriage: God's original intent*, Hyles Publications.
- 지선희 역(1997). 『결혼, 하나님의 본래의도』, 도서출판 예향.
-
- 경동진·조운옥(2014). “기독교청년의 결혼 준비도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신학과 실천』 (제41호) 353-386.
- 김정옥·박선민·구향숙(2006). “건강가족 형성을 위한 대학생들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1권3호, 201-223.
- 김광률(1997). “결혼예비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관”, 『기독교문화연구』 (1997년 2집),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1-33.
- _____ (1998). “결혼을 앞둔 이들이 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가?”,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교회』 261권, 36-37.
- 김규식(2013). “루터와 칼뱅 결혼관의 교회 교육적 함의”, 『기독교교육논총』, 제36집,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369-394.
- 김난희(1999). “그리스도인을 위한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전공 석사논문.
- 김영근(2008). “기독교적 관계발달과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 개발”, 『복음과 상담』 제 10권,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115-145.
- 김정옥 외(2011). “건강가족 형성을 위한 대학생들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11권 3호. 201-223.
- 김혜선(2012). “한국교회의 결혼준비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제20권, 145-172.
- 박경옥·한숙자 (2012). “기독교청년을 위한 결혼예비지원그룹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복음과 상담』 제 18권, 131-159.
- 박주희·임선영 (2009).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2호. 29-43.
- 변영인(2008). “기독교 결혼예비교육에 대한 고찰”, 『복음과 상담』 제10권,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168-193.
- 오윤선(2008). “결혼 준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기독교적 결혼 예비상담

- 연구”, 『복음과 상담』 제10권,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194-221.
- 유재덕(2012). “작은 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30집.
- 이숙미(2011). “기독교 결혼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호.
- 이영호 외(2004).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1호, 27-43.
- 이정관(2015).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결혼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 『신학과 실천』, 제47호(2015년 11월), 401-426.
- 이정숙(2008). “결혼예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이후천(2011). “작은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적 과제”, 『신학과 실천』(26권 2호), 219-245.
- 정현숙(2005).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1호, 151-159.
- 정충길(2011). “작은 교회들의 해외선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충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 한내창 (2012). “종교성과 타종교와의 결혼 허용도”. 『한국사회학』, 46(1), 130-155.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홈페이지,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s”
https://www.oecd.org/els/family/SF_3_1_Marriage_and_divorce_rates.pdf,
 (2016. 10. 10. 검색).
- 노충현, “선교하는 교회가 큰 교회”, (기독신문, 2004. 2. 26일자),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0>, (2016. 10. 10. 검색).
- 뉴스파워 제휴 LA 크리스찬투데이.US(2014), “미국기독교인 이혼율 10%미만”,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25223, (2016. 10. 10. 검색).
- 불교닷컴, “천년지애 행복한 결혼준비교실”
http://m.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55#_adtep,(2016. 10. 10. 검색).
- 통계청, “2015 한국의 사회지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aSeq=352215, (2016.10.5. 검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 CBS 노컷뉴스(2012. 11. 14), “미자립교회 ㉔ 국내 미자립교회 수는?”,
<http://christian.nocutnews.co.kr/show.asp?idx=2313827>, (2016.10.10. 검색).
- SWC쪽지(Swall Worthy Church Letter) 제10호(2014. 10. 31.), 총회국내전도국.